

5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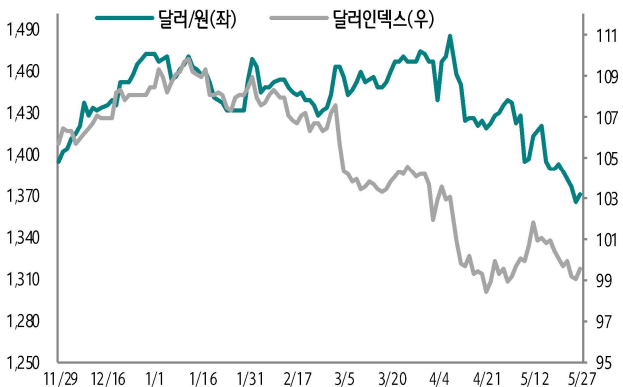
[USD/KRW]

USD/KRW 예상 : 1,370~1,380원
NDF 증가 : 1,372.50 (Swap point : -3.10, 1,375.6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일본 재무성의 '日 장기채권 발행 규모 조정 검토' 언급이 엔화 약세를 촉발하며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반등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것도 달러화 지지력으로 작용. 미국과 EU의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위안화 등 亞 통화의 약세 또한 달러원 상승 재료. 다만, 금통위를 앞둔 경계감이 달러원 상승 수준 제한 가능.
- (전일 동향) 전장 대비 3.6원 높은 1,368.0원에 개장한 달러원 환율은 장중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371.9원에서 고점을 확인한 뒤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며 1,369.5원에 정규장 마감. 달러인덱스에 연동해 야간시장에서 상승폭을 늘린 달러원은 전장 증가 대비 12.1원 상승한 1,376.5원에 거래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엔화 약세에 연동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 亞 통화 약세 연동	• 금통위 경계감에 원달러 상승폭 제한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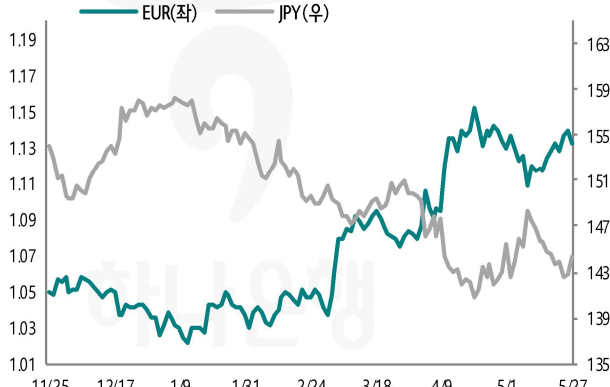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1300~1.1400
USD/JPY 예상 : 143.00~145.00

- (USD Index) 전일 큰 폭 하락한 달러인덱스가 낙폭을 일부 되돌렸으며, 일본의 장기물 국채 축소 발행 가능성에 日 장기국채 금리 하락. 이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귀결되며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596포인트 상승한 99.586으로 마감.
- (EUR)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둘러싸고 EU와 러시아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직면하며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058달러 하락한 1.1328달러로 마감.
- (JPY) 우에다 BOJ 총재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 발언에 낙폭을 확대하던 달러-엔 환율은 오후장에서 반등. 日 재무성의 장기채권 물량 축소 검토 보도에 장기채 금리가 급락하며 달러-엔 환율은 전장 대비 1.47엔 상승한 144.31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99.586 (+0.596)	
EUR/USD	1.1328 (-0.0058)	1,551.49 (-2.07)
USD/JPY	144.31 (+1.47)	948.97 (-6.19)
USD/CNH	7.1914 (+0.0138)	190.43 (+0.35)

EUR, JPY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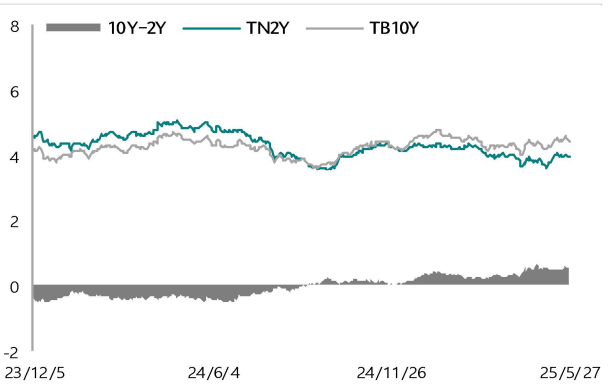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46.7bp (전일대비 -0.055)

- 뉴욕 금융시장은 주가와 채권가격, 달러화 가치가 모두 상승하며 마무리.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까지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하자 뉴욕 3대 증시는 동반 상승.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78%, S&P500은 2.05%, 나스닥은 2.47% 상승하며 장 마감. 美 국채금리는 일본의 장기국채 발행 축소 소식에 따른 전반적인 국채 공급 우려에 전 구간 하락 추세 이어가다 10년물은 4.4498%, 2년물 3.9830%로 장 마감. 금주 계획된 OPEC+ 회의에서 중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WTI는 배럴당 60.89달러, 브렌트유는 64.04달러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06:00	한국 기업 신뢰지수(5월)		68
15:45	프랑스 GDP성장률 YoY(Q1)	0.8%	0.8%
16:55	독일 실업률(5월)	6.3%	6.3%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달러인덱스
도널드 트럼프
환율
소폭
상승